

박여범의 소소한 일상

동그라미 달력

보통 사람들은 달력을 보며, 가족이자 지인, 절친의 생일, 기념일 행사 등을 기억하고 싶어 '동그라미'를 치거나 색을 구별하여 정리해 두기도 한다. 끝자 중심의 커다란 달력은 교실이 사무실의 벽에 걸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달력에 행사를 중심으로 기록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달력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기 때문일 것이다.



박여범

용북중학교 교사·시인 문학박사·문학평론가

잠시 멍하니, 달력을 보며 허공을 바라본다. 수업은 뒷전이고 쌓이는 공문에 행사 일정에 보고해야 할 문서들로 너저분한 책상도 '망청히 있기' 좋은 환경이다.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일을 진행하다 보면, 다 매끄럽게 처리되는 것이 신기하다. 능력도 없는 내가 나를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다 보면 만족감이 100% 일 때도 종종 있다. 일이 마무리될 때마다 달력에는 'X 표시'가 하나씩 늘어간다.

달력 하면 '동그라미'가 생각난다. '세모, 네모, 별, 하트, 느낌표, 물음표' 등 다양한 부호에서 '동그라미'일까? 사람들은 왜 '동그라미'가 당연한 것처럼 달력에 그려 놓았을까? 시인 장수남의 '엄마의 달력'을 눈에 담아 보자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왜 '동그라미'였을까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순서인 듯싶다.

아빠가 걸어놓은/새 달력엔/엄마가 그려놓은/발간 동그라미 한 장 한 장 넘길 때면/발간 동그라미/피란 동그라미
아빠 생일/누나 생일, 그리고/내 생일은 발간색 글자/피란색 동그라미.
우리 엄마 생일은/꽃피는 새봄/엄마/아빠 결혼하던 날/피란색 동그라미라고

이 시는 아버지가 걸어놓은 새 달력에 엄마가 그려놓은 다양한 색깔의 '동그라미'가 촘촘하고 있는 형상을 그려내고 있다. '가족의 생일, 결혼기념일과 가장 중요한 엄마의 생일이 꽃 피는 새봄'임을 강조하고 있다.

위의 시처럼,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일정을 여기저기 기록하기 바쁘다. 누가 봐 주길 기대하는 것도 아니다. 자신의 기억을 못 믿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기록을 하지 않을

수도 없다. 심리적으로 무엇인가 불안하다. 기억의 한계를 우리는 기록하면서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넘치지 않는 기록은 나쁠 것이 없다.

모뎀별 토론이나 활동을 진행하다가 교실을 한 바퀴 돌아볼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지저분한 달력과 마주치곤 한다. 거의 모든 학급이 비슷하다. 달력에는 자신의 생일을 유난히도 크게 '동그라미'를 그어놓는다. 그래야 자신의 생일을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달력의 새하얀 얼굴은 온데간데없고 낙서의 전시장이다. 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런데도 달력이 아파 보이는 것은 나만의 착각일까?

쉬는 날이 그리워 바라본 /새하얀 얼굴에 동그라미/몽글몽글 피어 있고 기념일 흥수 빨개진 미당엔/재잘

재잘 까치의 반가운/편지 한 장 도착하고
내가 있기에 네가/존재하는 것처럼 하루하루/적이지는 지우개의 물살에
거친 바람을 이기고/다시 올 서러운 서른 날은/아픔을 껴안고 함께 할 동그라미다
(시인 박여범 '동그라미 달력')

달력의 쓰임은 다양하다. 어린 시절 달력은 한 장이라도 그냥 버리는 경우가 없었다. 단 한 장의 달력은 벽지로 사용되거나 명절이면 부침개를 보관해주는 선반의 받침대가 되어 주었다. 심지어, 아이들 놀이 중요한 딱지나 비행기를 만드는 재료가 되기도 하였다. 너무 헤어져 아무 용도로도 쓰일 수 없는 경우 예라도 불쏘시개로 사용되었다.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이로운 것은 종이, 그 한 장, 한 장이 소중하던 시절의 모습이다.

디지털 시대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기능이 뛰어나고 산뜻한 달력이 생산되고 있다. 그런데도, 내가 근무하는 교무실 중앙 벽에는 커다란 지역농협 달력이 텅 하니 자리 잡고 있다. 아무리 편리하고 예쁜 달력은 달력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편리성'이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줄 '지역농협' 달력이 오래오래 함께 해주길 기대하면 무리일까?

독자제언

늘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는 위험, 음주운전

서늘한 가을날씨로 가을 나들이를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음주운전자 또한 늘고있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작년 9월 25일 부산 해운대에서 운창호씨가 만취운전자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많아지며 '특정범죄 기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그 결과 지난 6월 25일부터 가화된 도로교통법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었고, 이후 음주 단속 및 음주 사고

발생건수가 지난 해 동 기간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나는 괜찮겠지", "농사일하다가 막걸리 한 두 잔 먹었는데 괜찮겠지" 등 안일한 생각 때문에 여전히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언제나 우리의 주위에서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그 위험 중 음주운전도 그 하나라는 것을 깨우쳐야 하며 우리가 그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이다.

김태우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순경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박물관과 오토바이 묘기의 조합



16일(현지시간) 크로아티아 수도 자그레브의 미마라 박물관 앞에서 모터크로스 오토바이를 타고 하는 크로스컨트리 경주) 기수가 프리스타일 스텐트를 펼치고 있다.

사설

국회 예결위 전국 순회에 철저 대비해야

국회 예결위가 이례적인 행보를 보일 예정이다. 전국을 순회하면서 광역 시도 지자체들과 예산에 대해서 논의할 모양이다. 이에 전북도는 철저히 대비해야겠다. 예산 증액 확보로 대도약을 보여줘야겠다는 주문이다. 저번에 민선 7기 1주년을 맞는 기자 간담회의 자리에서 도지사는 도정의 성공을 약속했다. 그때 말한 춘화추실은 전북 대도약의 다른 이름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도지사와 전북도 고위 관계자들은 예산 증액의 논리를 세련되게 갈고 닦고 해야겠다.

국회 예결위의 전국 순회는 전북도가 이쪽의 사정을 말하기 좋은 기회이다. 그들이 전북을 방문하면서 보고 느끼는 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도민을 상대로 늘 강조하고 말해왔던 바 자본의식 없이 새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것은 도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따라서 증액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도지사와 브레인들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 그리고 예산 확보 열기를 연말까지 계속 뜨겁게 달구어야 한다.

전북도가 여러차례 말한 바 있듯이 핵심 프로젝트가 다시 생

각나는 지금이다.아시아 스마트농생명 밸리 사업이며 새만금 내부 개발 사업 등 그 핵심 프로젝트들의 성공을 위해 좀 더 분발해야겠다.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약속한 현인들이 추진에 있어서는 터덕거리고 있는데 여간 실망스러운 게 아니다. 전북도는 정말이지 실력 발휘를 해야겠다. 전북도가 해결해야 할 대상은 새로운 것들이 아니다. 전북도가 도민에게 여러 차례 언급하고 또 그 성취를 자신한 것들이다.

전북도는 예산 증액 확보를 위해 힘내야 한다. 발전 방침을 밝혔다가 나중에 예산 부족으로 일이 잘 안 풀렸다는 식의 변명의 말을 들려주어서는 안된다.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해 수십 년 뒤쳐진 낙후는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정말이지 전북도는 예산 증액 확보를 위해 힘내야 한다. 이대로 세월만 가면 지역 발전은 요원하다. 예전에도 여러 번 지적했거나 청사진대로라면 진척에 완료됐어야 할 사업들이 아직도 현안으로 남아 있다. 전북도는 도민에게 여러차례 대도약을 선언한 만큼 달린 각오를 다져야 한다.

새만금 물류허브 비전 키워야 한다

새만금 물류 비전을 키워야 한다. 비전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은 어느 한 두 사람의 뜻이 아니다. 익히 알고 있는 그대로 도민 전체의 뜻이다. 저번에 새만금 인입 철도 사업 건이 용역 결과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으면서 원래 한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새만금에 철도가 연결되고 국제공항이 들어서면 땅에서 하늘에서 물류허브의 꿈을 만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해수부의 5만톤급 규모 확대안과 관련해 주문했던 게 다시 생각한다. 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갔는데 이쪽에서도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던 것이 그것이다.

전북도가 새만금 비전을 키우는 것은 시대의 당연한 요청이다. 그에 따라 새만금 신항만 규모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신항만 부두 시설은 2만톤에서 3만톤 정도의 규모이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않았다가는 다른 광역시도 지자체의 항구들에 비해 낙후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다. 잠자 새만금을 동북아의 허브로 키우겠다는 방침을 생각할 때 전북도가 투자 재정의 성격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전북도는 물류 허브 구축을 위해서 재정 확보에 더욱 힘내야

했다. 도민들이 바라는 바, 그 구축의 정도는 어떠한 것이 아니다. 도민은 전북도가 오래전부터 들려준 수준의 인프라를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는 오래 전부터 새만금 공항과 신항만 건설 의지를 보여줬다. 도민들은 전북도의 SOC 대응책 발언과 관련해 거는 기대가 크다. 그것은 그만큼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게 아직은 청사진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전북도는 그것을 말한만큼 그것을 실행할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것은 야심이며 비전이 청사진 구상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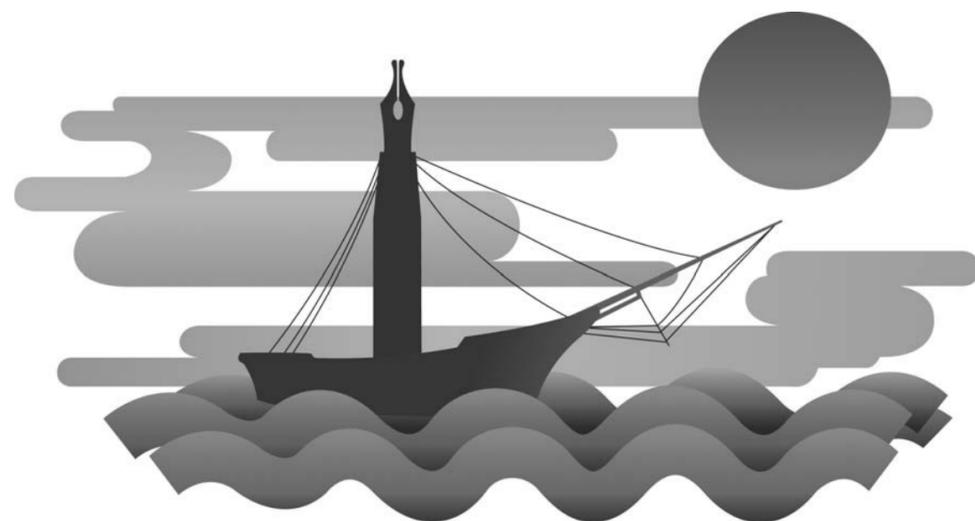
결국 새만금 비전은 돈이 말을 하게 돼 있다. 그런데 전북도 자체의 힘만으로는 그 돈을 총당할 능력이 없는 게 사실이다.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인데 새만금 사업이 매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하다.정부가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 녹록치 않다. 전북도는 새만금 신항이며 새만금 공항이며 철도 건설 등 물류 허브 기초를 다지기 위해 힘내야 한다. 전북도가 SOC 예산을 조금 증액해 확보했다지만 그것으로는 민족을 말할 수 없다. 새만금 사업이 원래한 만큼 더욱더 욕심을 내야 한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